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세상 끝날까지의 약속

성경: 마태복음 28장 18-20절

Tag: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8 -
20)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항상 함께 있을텐데, 그
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항상의 반대말은 띄엄 띄엄이다.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다. 우리는 띄엄 띄엄 주님을 생각할지 모르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
께 하신다.

이 약속은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다.

보이지 않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당부시다.

다행히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존재이고, 보이지 않아도
소망할 수 있는 존재이며,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본인이 믿고 싶지 않을 뿐이다. 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냥 믿고 싶지 않을 뿐이

다.

그런데 조상에게는 꼬박 꼬박 절을 한다. 오늘은 제삿날이니, 조상이 왔다고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 어떨 때는 꿈속에서 보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개가 우는 걸 보니 조상이 저 개로 환생했다고 말한다. 개도 기가 막힐 지경이고, 조상도 기가 막힐 지경이다. 개로서는 냄새에 민감한 짐승이라, 기름진 제사음식 냄새 때문에 괴로워 우는 것이다.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장님은 정말 믿을만한 것이 너무 없게 되고, 그 삶은 피폐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가지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약속은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약속이다.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는 권세가 없는 자의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권세가 없다면, 능력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지혜가 출중한들 의미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수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다른 것이 이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신 분이 아니다.

물론 그 진리가 다른 모든 성자라 불리우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만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유식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인용하는 재료가 아니다. 교양을 쌓기 위해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실제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실제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는 기적을 원한다.

우리는 실제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며,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며,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을 원한다.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진정한 통치자. 선거 때 구호를 외쳐대는 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5년짜리 이리 저리 휘둘리는 권력자가 아니라, 용두사미처럼 호언장담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통치자를 원한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주는 통치자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권세자가 되셨다는 약속이고, 선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하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만약 내가 잘못하면, 나를 징계하시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면 내 길을 망가뜨리시며,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삼라만상이 다 주의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탁월한 통치자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다.

특히 죄인을 다루시는 가장 탁월하신 코치시다.

온 우주는 저절로 돌아가는 팽이가 아니라, 전능자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주에 수많은 운석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하루에도 지구에 운석이 약 17개(1년에 6100여개) 쏟아져 내리지만,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소멸된다.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전능자는 크고 중요한 일에만 관여하시는게 아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

도하면 들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 뜻밖의 결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며, 수시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잘 아신다. 습관화된 실수는 따끔하게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측은히 여기시고 감싸주신다.

두 번째 약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된 열매가 맺히도록 약속해 주셨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의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리라는 약속이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약속해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다.

다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다.

제자가 된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약속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베풀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다는 약속이다. 누구든 세례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가문을 일으키신다.

그 산업을 일으키시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 주신다.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 주신다.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역이 변한다. 나라가 변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특히 개신교, 그 중에서 장로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마치 꽃이 피어나듯 산업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 천재적 소질이 있어 각 나라를 순방하면서 정치체제를 연구하였고, 개신교 국가인 미국의 정치체제가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본받아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놀라운 성장을 하였다.

지금도 세계 각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다.

복음전파 100여년만에 이만큼 성장한 경우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짐까지 지고 말이다.

현재로서는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다. 50년 전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념올범주의가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금 진실된 교회,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야 하리라는 계시와 같다. 세마포를 빠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시대 우리는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제자 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 끝날에 오는 환난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는 계속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환난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원의 약속을 네 눈으로 보아라.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라. 자신이 구원 받았음을 증언하라. 각자에게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야 증인이 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자가 제자다.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자가 제자다.

세상은 전쟁으로 시끄럽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니, 오랜 전쟁은 잊혀지고 있다.

전쟁 때문에 지구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는 경제적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영끌했던 자들은 몰락하고 있다. 빈집은 늘어나는데, 살만한 집은 구하기 힘들다. 어려운 시기인데 소비를 줄일 생각은 없다. 애꿎은 간식값, 커피값만 줄여서 소상공인들이 도산하고 있다. sns는 풍성한 소비를 하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고, 상가들은 공실로 가득하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고, 악인들이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도 묵묵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잠잠하고 겸손하게 본분을 다하는 자들이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초청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찌우고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하루 하루, 한주간 한주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